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11년만의 올스타전 '뜨거운 광주' 25일 11년 만에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린 무등경기장야구장에 1만2천 관중이 찾아 만원사례를 이뤘다. 사진은 올스타전 식전행사 장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9세 소년 안치홍 '별중의 별'

올스타전 신인 첫 MVP … 역대 최연소 홈런기록도

11년만에 광주를 찾은 프로야구의 큰 잔치 올스타전에서 타이거즈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웨스턴리그 베스트 10에 선정된 외야수 이종범은 1993년 올스타전 출전 이후 13번째로 별들의 무대를 밟으며 최다 출전 기록을 새로 썼다.

웨스턴팀 2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전해 1회 1사1루에서 결승 2루타를 기록하는 등 실력에서도 올스타임을 과시한 이종범은 이날 5회와 7회에도 안타를 때려내며 4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을 올렸다.

1루수와 유격수로 선발출전한 최희섭과 이현곤도 각각 안타 2개씩을 기록하며 야구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윤석민을 필두로 한 KIA 마운드의 활약도 돋보였다. 웨스턴팀 선발 윤석민은 2이닝 동안 '올스타 홈런왕' 이대호 등 쟁쟁한 6명의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윤석민에 이어 마운드에 등판한 양현종·유동훈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지켜냈다.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기록했던 '안방마님' 김상훈도 깔끔한 리드로 투수들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

감독추천으로 올스타전에 초청받은 용병 아킬리로 로페즈는 23일 LG와의 홈경기에서 8이닝을 던져 마운드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신 사촌형인 루이스 로페즈가 홈런 레이스 도우미로 나섰다.

도미니카 야구 국가대표 출신인 루이스 로페즈는 홈런 레이스에 출전한 최희섭에게 배팅볼을 던져주며 올스타전 무대에 섰다.

이날 홈런레이스 예선에서 3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최희섭은 이대호와 최종대결을 가졌지만 결승에서는 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7-3 승리를 합작하며 웨스턴팀의 5연패를 끊은 KIA 선수들은 올스타전 상도 휩쓸었다.

2이닝 완벽피칭에 빛나는 윤석민은 우수투수상을 노익장의 이종범은 전직 프로야구단 사장들의 모임인 선구회가 선정한 '선구회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인 안치홍은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입단 첫 해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경기장 밖에서도 타이거즈맨들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꼬꼬마' 양현종과 안치홍은 경기 전 팀의 마스코트 호돌이로 변신해 팬들에게 깜짝 인사를 했다. 호돌이 탈을 쓴 두 선수는 김주일 응원단장과 함께 경기장을 돌면서 팬들의 응원을 유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했다.

하지만 올스타전을 끝낸 광주에 야구장 신축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이날 경기장 내부 매표소 앞 주차장이 올스타전 행사장으로 운영되면서 주차 대란이 벌어졌다. 비좁은 행사장에 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입장 행렬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장 내부 사정도 마찬가지. 선수들의 편의시절이 턱없이 부족한대다 올스타전을 총괄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일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수와 취재진, KBO 대학생 마케터, 식전행사 참가자 등이 한데 뒤엉켜 덕아웃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VP 부상 포르테 받은 안치홍

"내친 김에 신인왕까지…"

'겁없는 신인' 안치홍이 신인 최초로 미스터 올스타의 영광을 안았다.

안치홍은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웨스턴리그 2루수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장, 1-0의 박빙의 리드가 이어지던 5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2일 20번째 생일을 맞았던 안치홍(19세 23일)은 이날 홈런으로 역대 올스타전 최연소 홈런기록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1997년 이승엽이 달성한 20세 10개월 20일. 첫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던 안치홍은 두 번째 타석에서 SK 고효준의 직구를 받아 홈런을 기록했다.

안치홍은 "직구 하나를 노리고 있었다"며 "선배들이 홈런 하나면 MVP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됐다'는 생각에 두 손을 들어올렸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치홍의 홈런 이후 최승환(두산)과 황재균(히어로즈)도 홈런을 기록한데다 팀의 선배 이종범은 4타수3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하는 등 MVP를 놓고 쟁쟁한 경쟁이 벌어졌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1-3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외야플라이로 물러난 뒤 LG 박경수와 교체되기도 했다.

안치홍은 "코치님이 올스타전에서 볼넷으로 나가는 만큼 멍청한 선수는 없다고 해서 볼넷으로 출루하지 않으려 볼을 건드렸다"고 밝혔다.

25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투런홈런을 친 KIA 안치홍이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던 MVP 트로피는 전체 67표 가운데 36표를 얻은 안치홍의 품에 안겼다. 고졸 신인으로는 첫 올스타 베스트로 선정된 '루키' 안치홍의 당당함이 표심을 움직인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고 준우승

화랑기 고교야구

화순고가 제61회 화랑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화순고는 25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부산 개성고와의 화랑기 결승에서 뒷심 부족으로 1-3으로 역전패 당했다. 3회말 1사2루에서 신진호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화순고는 5회초 1사 1루에서 터진 개성고 전병우의 2루타로 동점을 허용했다. 1-1의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지던 8회가 승부처가 됐다. 7회까지 11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개성고 타선을 1실점으로 막은 화순고 선발 이승현이 8회초 연속해서 볼넷을 내주면 흔들렸다.

마운드가 홍건희로 교체됐지만 안타와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점수는 1-3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9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박태환이 26일 오전(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포로 이탈리코 메인풀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3위로 들어온 후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충격의 탈락'

로마 세계선수권 400m 예선 조 3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2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박태환(20·단국대)이 예선 탈락했다.

박태환은 26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코 콤플렉스에서 열린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경기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예선 10조에서 3분46초04에 터치패드를 찍어 조 3위, 전체 12위에 머물며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07년 멜버른(호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금메달을 따냈던 박태환은 이로써 대회 2회 연속 우승 꿈을 접었다.

파울 비더만(독일)이 3분43초01의 기록으로 9조 1위, 전체 1위로 결승에 올랐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에 이어 은메달을 땄던 장린(중국)이 3분43초58로 비더만에 이어 9조 2위를 차지, 전체 2위로 결승 무대에 선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개인 기록이 가장 좋았던 박태환은 앞서 경쟁자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마지막 조 4번 레인에서 물살을 갈랐다. 0.68초로 가장 빠른 출발 반응 속도를 보였지만 박태환은 초반부터 레이스에서 뒤처졌다.

50m 랩타임이 26초38로 전체 10명의 선수 중 쑨양(중국)과 함께 최하위였다.

150m는 8위, 200m는 6위로 통과하면서 막판 스퍼트가 좋은 박태환의 역전극을 기대했지만 초반 흔들린 페이스를 만회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결국 한 번도 선두로 치고 나가지 못한 채 밴더케이에 0.64초 늦은 조 3위로 레이스를 마쳐 예선 탈락이라는 쓴잔을 들었다. 10조에서는 밴더케이만 전체 5위로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초반부터 나갈 생각이었는데 페이스가 조금 늦었다. 전반에 많이 떨어져 후반에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가볍게 물을 타지 못했다. 페이스 자체가 서툴렀다. 기대만큼 실망도 크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좋은 경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7일 오후 시작하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연합뉴스